

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

우리나라 아동·청소년은 인권을 보장받고 있을까?

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


1989년 11월 20일,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'**유엔아동권리협약**,
이 협약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.
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'**유엔아동권리협약**, 을 비준했습니다.

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년,

**우리나라 아동·청소년은
인권을 보장받고 있을까요?**

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0년에 **전국 초·중·고 학생 8,623명**을 대상으로 **'아동·청소년인권실태조사'**를 실시했습니다.

주요 조사문항

아동·청소년인권지표체계
-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 -



인권일반 및
일반원칙

가정환경 및
대안양육

시민적 권리와
자유

장애·기초 보건
및 복지

특별보호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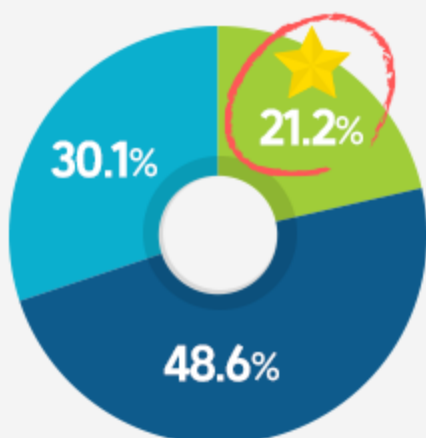
폭력 및 학대

교육·여가 및
문화적 활동

'아동·청소년인권지표체계'는 7개 대분류 영역 114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이 중 41개 지표항목을 아동·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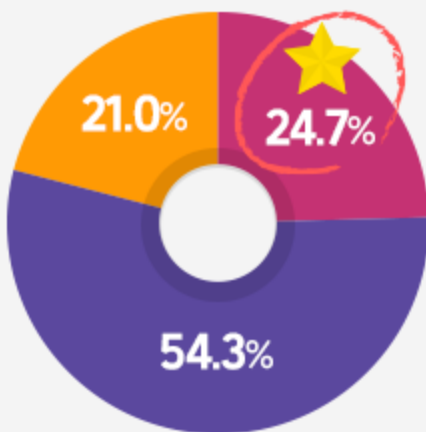
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

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,
유엔아동권리협약, 국가인권위원회 **모두 인지도가 낮은 편**이었습니다.



유엔아동권리협약

- 이름도 들어봤고,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.
- 이름만 들어봤다.
- 모른다.



국가인권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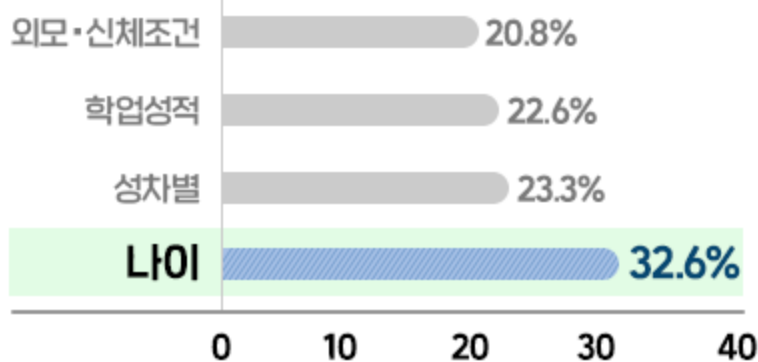
- 이름도 들어봤고,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.
- 이름만 들어봤다.
- 모른다.

차별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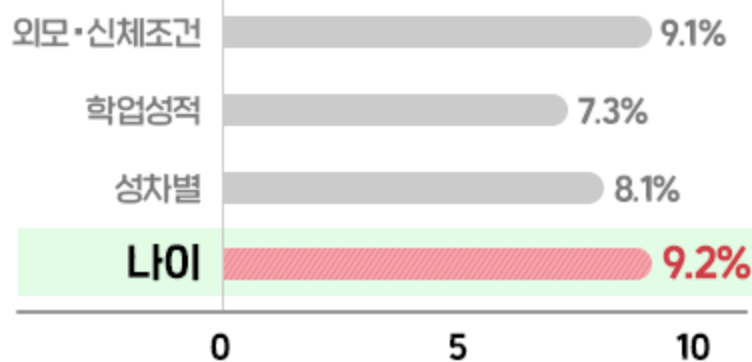
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,
'나이'에 따른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

"어리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 32.6%"

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?



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?



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차별한 이유 또한
'나이'가 1순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건강 및 여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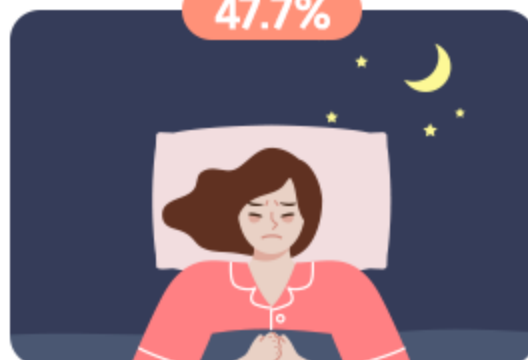
아동·청소년은 **여가와 운동, 수면시간이 부족**했으며
학업부담으로 인해 **신체적,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**으로 나타났는데요.

52.9%



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3시간 미만

47.7%



수면시간 부족 호소

55.8%



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 실천율

36.6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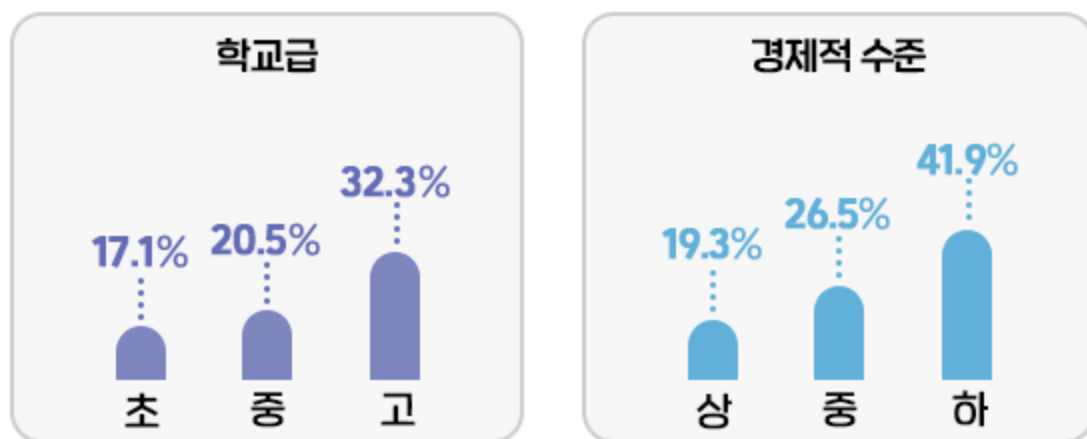
정규수업시간 외 평일 하루 평균
공부시간 3시간 이상

수면부족 이유로는 **숙제와 학원 등 학업문제가 41.9%**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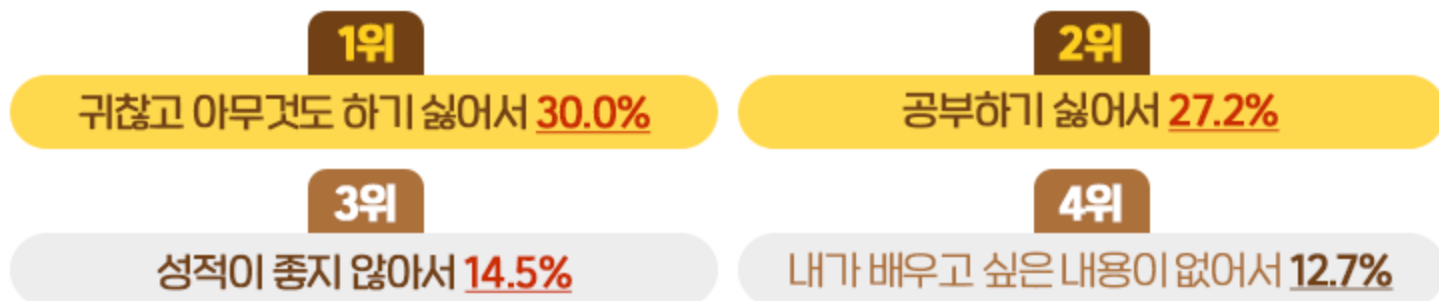
교육

'학교를 그만두고 싶다'고 생각한 적이 있는 아동·청소년은 23.6%로, 학교급이 올라갈수록,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많이 나타났습니다.

·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 ·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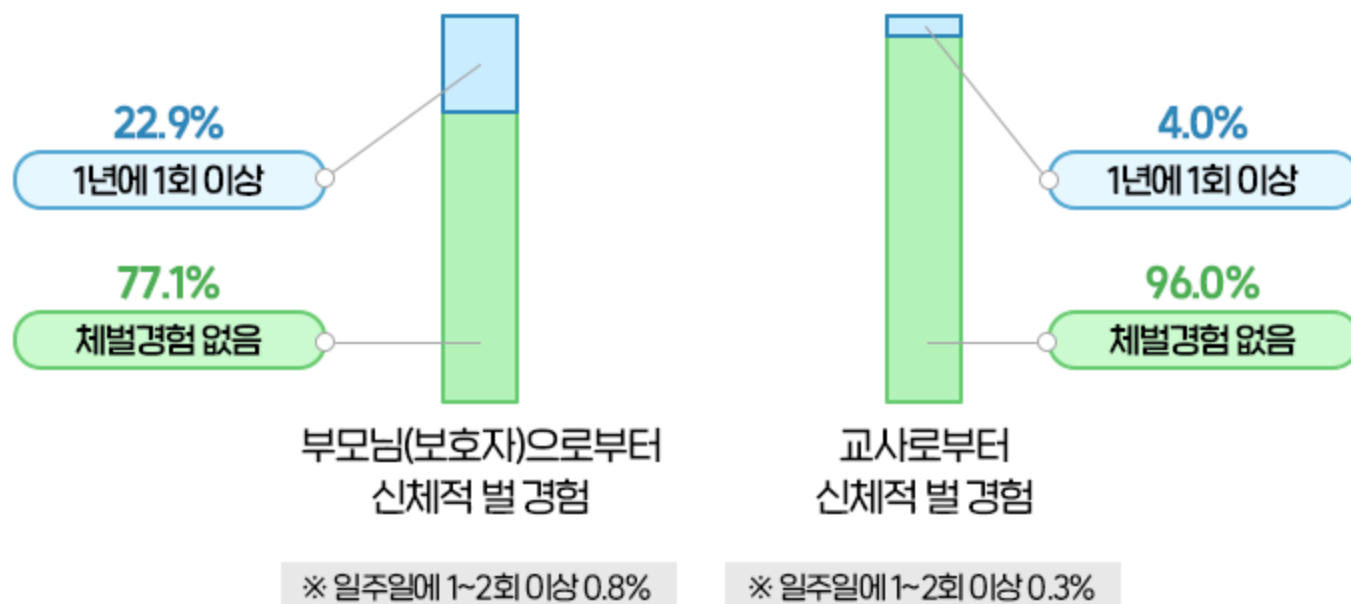
·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·



'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'고 응답한 학생은 27.0%로, 학업부담과 성적 등 학업문제(39.8%)가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.

폭력

그리고 최근 1년 이내 부모, 교사로부터의 **체벌 경험**이 있는지 물었는데요.



부모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·청소년은 22.9%,
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·청소년은 4.0%인 것으로 나타나
신체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

참여 및 인권의식

71.0%의 아동·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했지만, 실제 지표들은 낮은 참여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참여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.

학생회 운영 자율권 보장 정도는 **40~50% 수준**에 그쳤으며,
"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"는 응답율은 **27.4%**로 낮게 나타났습니다.

아동·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는 **11.9%**에 불과했습니다.

아동·청소년 사회 참여권의 장애요인



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도 볼 수 있는데요,
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**69.6%는**
'그렇지 않다'고 응답했으며, **87.3%가 청소년도 사회와 정치문제에 참여**해야
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
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한 아동·청소년은 **83.7%**로
문항별 응답결과에 비해 인권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,
이는 인권감수성 증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.



아동·청소년은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이자 인권의 주체입니다.

대한민국은 협약비준국으로서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
아동·청소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

협약비준 30년을 맞아 **유엔아동권리협약을 성실히 이행**하고
아동·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.

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
'2020 아동·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- 한국 아동·청소년 인권실태:총괄보고서,

김영지 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· 선임연구위원)

황세영 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· 연구위원)

최홍일 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· 전문연구원)